

2018년 4월 30일

emerics@kiep.go.kr

르완다産 의류 AGOA 수혜 자격 중지



©REUTERS

- 미국은 르완다의 중고의류 수입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해 5월 28일부터 르완다에서 수출하는 의류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수혜 자격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함.^{1,2}
 - 이와 같은 조치는 2017년 3월 미국중고재생직물협회(SMART: Secondary Materials and Recycled Textiles Association)가 제출한 탄원서에서 비롯됨.
 - SMART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2019년까지 중고의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0.2/kg → \$0.4/kg)하자 미국통상대표부(USTR)에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및 르완다의 AGOA 수혜 자격 재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함.^{3,4}
 - 미국에서 수출하는 중고의류 중 EAC에 수출하는 비중은 22% 수준임.
 - 미국이 비정기 자격 심사를 통해 EAC회원국 섬유제품의 AGOA 수혜 자격 중지 의사를 밝히자 케냐, 탄자니아 및 우간다는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함.⁵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및 르완다의 2016년 대미 수출규모는 각각 \$5.5억, \$1.5억, \$5,200만, \$2,600만 수준임.⁶
- 르완다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결정에 수긍하겠다고 밝힘.
 - 르완다는 중고 의류와 중고 신발류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kg(혹은 수입총액 대비 35% 중 높은 금액 부여)와 \$5.0/kg(상등)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유지함.

1)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은 법치, 인권, 시장경제체제 등 사회·경제적 개선 조건을 충족하는 사하라이남 국가에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해주는 특혜무역협약으로 2000년에 제정됨.

2) "President Trump Determines Trade Preference Program Eligibility for Rwanda, Tanzania, and Uganda," 03.29.201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3) EAC는 부룬디, 케냐,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및 우간다로 이루어져있으나 부룬디 및 남수단은 AGOA 수혜국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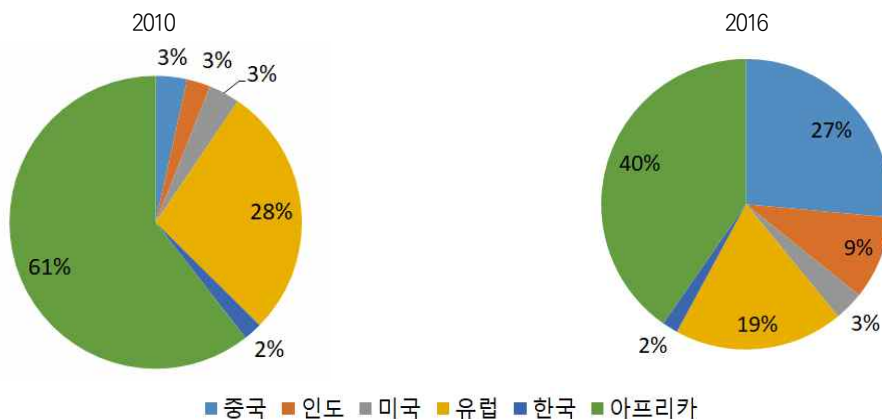
4) AGOA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제거, 인권 향상 및 테러 방지 활동에 협조 등의 조건이 있음.

5) 섬유제품은 AGOA를 통한 EAC의 대미 수출에서 80%이상을 차지함.

6) Trade Profiles, AGOA.info (<https://agoa.info/profiles.html>).

- 르완다의 섬유산업 규모는 GDP대비 0.3%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류 자재조차 수입하고 있으나 르완다 정부는 내수시장 수급을 목표로 섬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⁷
- 특히 'Made in Rwanda'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원단 및 직물기계에 면세혜택을 부과하고 정부 차원에서 키갈리경제특구內 섬유산업 전용 부지를 구입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보임.⁸
 - 수입원단 직물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10~25%에 달하였으나 2016년 12월에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폐지함.
 - 일반적으로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부지매입 시 선금으로 30%를 지불하고 2년의 유예기간 후 5년간 완납해야하나 정부에서 5헥타르를 구입해 20년간 완납할 수 있도록 함.⁹
- 이번 조치는 미국의 **對아프리카 정책 기조가 개발협력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다른 국가들이 르완다 섬유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미국이 인권유린 및 안보 위협의 사유로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AGOA 수혜 자격을 종료한 적은 있으나 통상 정책상의 사유로 중지한 것은 처음임.
 - 르완다는 향후 중고의류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저가의 중국산 의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2011년 이후로 르완다 의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키갈리경제특구에서 대규모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 중에 있음.
 - 르완다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반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조공장 설립보다는 원단 및 직물기계 수출 혹은 의류산업 기술 교육 전수와 같은 개발협력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르완다는 Doing Business 2018에서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190개국 중 119위를 차지함.
 - 르완다는 한국의 원조 대상국으로 누적 원조금액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그림 1. 주요 의류 수입국의 수입 비중 변화



자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MIT.

(작성: 김예진 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7) National Accounts, 2017,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

8) 'Made in Rwanda' 캠페인은 르완다産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구매를 독려하여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르완다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매년 17%의 수출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함.

9) 부지 매매가는 1헥타르 당 \$53.5만에 책정됨.